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시민참여

2008년 촛불시위를 중심으로*

송경재**

❖ 요 약 ❖

최근 시민운동의 확산과 동원과정에서 사이버 커뮤니티(cyber community)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역동성은 사회과학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천착하여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특성과 동학을 이슈집단(issue group)이 주도하는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운동 시각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왜 촛불시위에서 사이버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정치운동에 참여했는가? 비정치적 사이버 커뮤니티는 어떤 동학으로 참여했는가? 이들의 참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등을 연구하였다.

핵심어: 촛불시위, 네트워크 시민참여, 이슈집단,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 크로스오버형 시민운동, 사회적 자본

연구 결과, 첫째, 촛불시위에 등장한 비정치적인 사이버 커뮤니티는 이슈집단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슈집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시민운동으로 규정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참여의 스펙트럼 차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융합형 내지는 크로스오버형 시민운동'이라고 명명했다. 둘째, 이슈집단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토대로서 사이버 커뮤니티는 중요한 자양분이었다. 셋째,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의 민주주의 학습효과와 네트워크 효과도 촛불시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했다.

I. 사이버 커뮤니티, 촛불을 들다.

사이버 커뮤니티(cyber community)가 사회·정치운동 과정에서 중요

『국가전략』 2011년 제17권 2호

* 논문에 대한 세심한 지적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08-005-J01802).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하게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역동성은 사회과학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사이버 커뮤니티는 인터넷을 활용한 조직·동원의 시민운동 허브(hub)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정치색깔이 없는 사이버 커뮤니티가 온라인에서 광장으로 뛰쳐나와 정부정책 반대시위를 했다는 점에서 정치학에 새로운 연구과제가 등장한 것은 분명하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하 ICTs)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 커뮤니티가 시민운동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고 다양한 시민저항의 실험을 시도한 것은 충격적인 사건임에 분명하다(송경재 2010, 203-232; 장우영 2010, 25-55; Lee 2009; 전상진 2008; 조화순 2008; 조정환 2008; Rheingold 2002; 이설 2008).

존스(Jones 2006)에 따르면, “사이버 커뮤니티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없지만 주로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 연계된 사람들의 집단”으로 간주한다. 라인골드(Rheingold 1993) 역시 “네트(Net)로부터 출발한 사회적 집단”으로 설명한다. 다니엘(Daniel 2009, 10)도 “전통적인 커뮤니티 형성은 지리적인 요인이 많은 반면 사이버 커뮤니티는 기술을 이용한 사회적 네트워크로 출현된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 커뮤니티는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형성하는 복합기술의 공간에서 만들어진 집단이자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런 차원에서 2008년 촛불시위에서 사이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운동의 등장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근래 국내·외의 많은 연구결과는 인터넷의 개방적 아키텍처로 인한 자발적인 조직화와 동원의 기제로서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참여 가능성에 주목한다(Barber 1998). 미국 저소득층의 공공주택 개발지에서 사이버 커뮤니티의 효과를 분석하거나(Christopher Mele 2001)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발견된 새로운 참여방식 등장(Hill and Hughes 1998)에서 한국의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 2004년 탄핵반대운동과 국민연금 사건, 2005년 서귀포 부실 도시락 사건 등 인터넷발(發) 단일 이슈 운동(single issue movement)은 주요한 시민운동의 영역이 된지 오래다(백옥인 2001; 조화순·송경재 2004).

그렇지만 이런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참여와 사회운동 과정은 전통적인 분석틀로 해석하기 어

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비정치적인 사이버 커뮤니티가 촛불시위에 참여한 것도 놀랍지만, 인터넷 네트워크 연계성과 링크(linkage)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는 시민운동의 모습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변화상에 천착해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전통적인 시민운동, 사회운동과 다른 ICTs기반의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특성과 동학으로서 이슈집단(issue group)이 주도하는 사이버 커뮤니티운동이다.

연구에서는 먼저, 사이버 커뮤니티 시민운동 주체를 빔버(Bimber 2003)가 지적한 특정 관심사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모인 이슈집단(issue group)적 해석을 시도한다. 빔버는 특정 정치적 관심사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이슈집단이 사이버 공간에서 결집하여 오프라인으로 운동영역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을 하는 이슈집단은 링(Ling 2008, 288-297)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파인(Fine 1979)의 소집단 내적 작동원리로서 집단 내에서 공유하는 지식·신념·행동·습관의 체계라는 '집단특유의 문화(idioculture)'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논의를 전개했다. 링은 모바일 미디어에 한정된 연구였지만, 집단이 하나의 가치이념을 가지고 사회 현상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면, 경계가 분명한 연대는 다양한 정보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슈기반의 집단은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하며 조직화하여, 온-오프라인의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Bimber 2003; Chadwick 2006, 114-115).¹⁾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를 '특정 관심사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모인 사이버상의 이슈집단(issue group)'으로 규정할 것이다.

왜 2008년 촛불시위에서 사이버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정치운동에 참여했는가? 그리고 비정치적 사이버 커뮤니티는 어떤 동학으로 참여했는가? 이들의 참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네오 토크빌리안(neo-Tocquevilleans)이 강조하는 공동체 시민참여의 한 형태인가?(Edwards and Foley 2001, 1; Whittington 2001) 아니면 네트워크 연계성으로 인한 새로운 인터넷 시민운동인가?

1) 탭스콧(Tapscott)은 이러한 새로운 집단을 세대이론을 적용, 넷세대(net generation)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목적이 세대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적인 논의는 탭스콧(2008)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의문에 해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방법론은 귀납적 추론을 통해 현상을 분석하는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research)와 웹 트래픽 조사 등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를 모두 적용했다. 그리고 선행 문헌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적용하여 측정 변수별로 공통점과 특성을 추출했다.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사례 비교연구, 기존 문헌연구, 발표된 설문조사 자료 활용, 웹 트래픽 분석 데이터, 인터넷 검색,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실시했다.

Ⅱ.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이 연구의 관심은 사이버 커뮤니티 시민운동의 메커니즘과 유형화 분석에 대한 것이다. 연구를 위해 우선 주목한 것은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참여와 관련된 두 가지 가설이다. 이는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참여 위축가설과 시민참여 강화가설로 구분되며 강화가설은 다시 3가지 연구 흐름으로 세분된다.

첫째,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참여 위축가설이다. 대표적인 주창자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연구자인 퍼트남(Putnam 2000, 175-177)이다. 그는 사이버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 쇠퇴와 시민참여에 대한 의문을 4가지로 제기한다. 첫째, 정보격차(digital divide), 둘째, 면대면(FtF) 접촉기회의 상실, 셋째, 사이버 발칸화(cyber balkanization), 넷째, 이상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사이버 커뮤니티가 신뢰할만한 규범구조나 커밋먼트(commitment)의 형성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사회적 자본 축적이 힘들다고 보았다.

시민참여 위축론자들은 사이버 커뮤니티의 속성 자체를 문제시한다. 사이버 커뮤니티는 가입과 탈퇴가 쉽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불완전하고 자기추구적 집합체로 갈 수 밖에 없어 파편화(fragmentation), 원자화(atomization)되어 협력적인 구조나 공동체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에 쉽게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Furnback & Thompson 1995; Davis, Elin

and Reeher 2002, 12-13). 선스타인(Substein 2007)은 자연발생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집단행동은 결국 민주주의에 해악이 된다고 보았다. 선스타인에 따르면, 사이버 커뮤니티가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을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분극화(polarization)가 나타날 것을 우려한다. 그 외, 면대면 커뮤니티에 비해 사이버 커뮤니티에서는 협력과 시민참여가 촉진되지 않거나(Tonn, Zambrano and Moore 2001), 분산된 사이버 커뮤니티의 문제점(Pruijt 2002),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인한 네트워크화 된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에 관한 경고 등의 연구 성과가 있다(Blanchard 2004, 56-58; Chadwick 2006: 26-27).

둘째,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참여 촉진가설이다. 이 입장의 학자들은 사이버 커뮤니티를 통한 시민성의 향상, 신뢰와 협력의 e-사회적 자본(e-social capital)이 증진되어 시민참여가 증가한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라인골드(Rheingold 2002)는 사이버 커뮤니티 확산이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에서 비롯되는 무임승차(free riding),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집단행동의 딜레마(dilemma of collective action)를 해결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참여적인 현명한 군중(smart mobs)의 등장을 주장하기도 한다.

시민참여 촉진가설을 다시 세분하면, 3가지 흐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흐름은, 기술결정적인 정보사회론자들의 논의이다. 다니엘 벨(Bell 1973)은 『후기산업사회의 도래』에서 컴퓨터와 같은 지적 기술을 이용한 합리적인 사회의 도래를 예측했다. 그리고 토플러(Toffler 1980)가 제3의 물결로서의 정보혁명이 참여적인 전자민주주의를 가능케 할 것이라 예견한 바 있다.

두 번째 흐름은 토크빌적 공동체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이버 네오 토크빌리안(cyber neo-Tocquevilleans)이다. 이들은 신뢰와 협력의 사회적 자본이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오프라인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시민성 증진과 민주주의 학습효과가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있듯이 사이버 커뮤니티에서도 동일한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본다(Daniel 2009, 10-11; Chadwick 2006, 87-88). 이들의 연구는 주로 지역 공동체와 사이버 커뮤니티가 e-사회적 자본 형성과 시민참여 촉진효과 연계성에 주목한다. 크라우트 등(Kraut *et al.* 2002)의 피츠버그(Pittsburgh) HomeNet 분석, 토론토(Toronto) 외곽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의 참여 네트워크 분석(Hampton and Wellman 2003), 블랙스버그 전자마을(Blacksburg

Electronic Village)의 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은 사회적 자본 형성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Casalegno 2001, 22-27).

세 번째 흐름은 네트워크 연계성 분석으로 대변되는 네트워크 사회론자들이다. 반다이크(van Dijk 1999), 카스텔(Castells 2001) 등은 ICTs를 탈집중화된 기술과 수평적인 구조로서 네트워크 사회의 진화와 발전을 통한 연계로 ‘뿔뿔이 달라진다’는 네트워크형의 시민참여적인 활동에 주목한다(Shirky 2008, 36-41). 그리고 다국적 운동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전지구적인 시민운동 네트워크의 형성에도 주목한다(Chadwick 2006, 115).

이와 같이,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참여 촉진과 위축론은 모두 일정한 조건에서 시민참여 현상과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행 연구는 결론론적인 효과분석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운동 과정에 관한 구조적 역동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발전과정을 가지고 있느냐를 너무 강조하여 사이버 커뮤니티의 동학으로서의 시민참여 메커니즘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발견된다. 또 기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론을 제외하고 비정치적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정치화되는지에 관한 효과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 자본 접근이 정치화과정의 설명 프레임으로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동학과 구체적인 행위자와 이슈의 성격에 따른 정보공유와 조직화, 동원의 메커니즘을 세밀히 파악하기는 부족하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단순한 시민참여 위축과 강화만의 효과분석이 아닌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참여의 동학을 2008년 촛불시위 사례로 분석하고 그 조건과 요인, 진화과정을 세분하여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사이버 커뮤니티 시민참여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분석의 틀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참여 논의는 시민사회의 조직과 형성, 작동원리에 있어서 기존 오프라인의 포드주의적인 시민참여방식에서 ICTs기반 시민참여방식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이는 네그리와 하트(Negri and Hardt 2008, 117-118)가 강조한 바, 탈집중과 다중심적인 형식으로 상호 소통

속에서의 결절체들 간의 환원 불가능한 복수성이 존재하는 네트워크 시민참여 현상이 등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먼저, 코헨과 라이(Cohen and Rai 2000)는 정보시대의 집단적인 조직화와 동원의 한 형태인 네트워크 구축으로서 특정 이슈에 기반한 사이버 커뮤니티와 저항의 지구시민운동을 논의한다. 그들은 시민들의 네트워크 참여를 지구적 사회운동(global social movement)으로 명명하고 국가라는 권위체와 정보화된 시민 간의 네트워크 운동과정을 분석한다(Castells 2001, 194-196).

한편, 사이버 커뮤니티 시민참여는 시민운동의 형식도 변화시킨다.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참여에 대한 버만과 멀리간(Berman and Mulligan 2003)의 분석에 따르면, 특정한 이슈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커뮤니티의 사회운동은 단순한 연대에서 시민의 권능(empowerment)를 강화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이슈를 지지하는 시민참여의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한다. 첫째, 바이러스와 같은 정보의 확산, 둘째, 이슈에 대한 유연한 조직화(ad-hocracy), 셋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여론형성 기능, 넷째, 참여의 게이트웨이(gateway) 확대를 설명한다(Berman and Mulligan 2003, 81-91). 버만과 멀리간의 접근은 시민운동이 단순히 정보제공에서 동원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집단행동 차원에서 분석하기보다는 행위자와 구조 그리고 층위가 다른 방식의 네트워크 시민운동 접근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이런 다층성 해석은 기존 온라인에서 발생한 시민운동의 오프라인화, 내지는 오프라인 시민운동의 온라인화라는 이분법적인 분석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이다.

영국의 정치학자 채드윅은 사이버 커뮤니티의 동원화에 주목한다. 그는 코헨과 라이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집단이 온라인적인 방법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지만 이슈에 기반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도 구축가능하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화에 반대하여 농민들이 봉기한 멕시코 사파티스타(Zapatista)의 전지구적 네트워크 운동, 그리고 2001년 필리핀의 에스트라다(Estrada) 대통령을 실각시킨 피플파워 II (People Power II)가 있다. 한편 채드윅은 조직화된 사회운동으로서 기존 집단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사례로서 무브온(MoveOn)을 분석하며 이를 하이브리드형(hybridity) 운동으로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네트워크사회에서 동일

한 이해관계 집단의 단일한 운동방식보다는 다양한 참여채널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Chadwick 2006, 122-128).

또 다른 사이버 커뮤니티 시민참여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 학자는 서키(Shirky 2008)이다. 그는 ICTs를 활용한 집단형성이 세브 파케(Seb Paquet 2002)가 이야기 한 ‘말도 안 될 정도로 쉬운 그룹 형성’이라 보았다. 이런 특성은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참여의 아키텍처(an architecture of participation)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의 과정을 사다리 형으로 비유한다. 이를 체계화하면 사다리의 아래에서부터 공유(sharing), 협력(cooperation),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의 순으로 사이버 커뮤니티의 동학을 제시한다.

연구자는 사이버 커뮤니티형 시민운동을 분석하기 위해 코헨과 라이, 버만과 멀리간, 채드윅 그리고 서키의 분석모델을 재구성하여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참여 메커니즘을 공유, 협력과 집단행동의 각 과정별로 살펴볼 것이다. 이 세 변수를 선정한 이유는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참여 논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참여의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자들의 시민운동의 주요 변인으로 설정된 첫째, 행위자로서의 이슈집단 분석, 둘째, 참여의 형태 변화상, 셋째, 네트워크 연계성, 넷째, 민주주의 학습효과 등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물론 자원동원이론(장우영 2010)이나 집단행동이론(송경재 2010)으로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참여를 분석할 수 있지만, 사이버 커뮤니티가 가지는 네트워크성과 커뮤니티성을 강조하여 정보의 공유와 협력의 단계에서 집단행동으로 진일보하는 동학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다층적인 분석은 선행 연구가 행위자인 시민을 대상화하고 이들을 사이버 영역에서만 조직화와 동원의 기제로 분석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Ⅲ. 사이버 커뮤니티 시민운동 분석

1. 사이버 커뮤니티의 정보공유와 협력

2008년 4월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타결되었을 때만해도 시민들은 사

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광우병 위협과 협상과정의 검역주권 문제가 돌출되면서 중요 이슈가 되었다. 이 시기부터 인터넷 포털 토론방과 게시판에서 논의가 재점화되었다. 시민들은 정보를 인터넷으로 알게 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에 대해 인식했고, 정부의 안전론을 압도했다. 물론 인터넷에서도 일부 과장정보로 인한 문제가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해와 성향, 관심사는 달라도 항의의 목소리가 결집된다. 인터넷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시켜 기존 권력관계 구조의 변화를 유발한 것이다(김상배 2008; 송경재 2008).

다음 단계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집중되자 네티즌들 중 사이버 커뮤니티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관심이슈를 커뮤니티 내의 게시판에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다 읽기도 했다. 인터넷이란 기술로 무장한 시민들은 올드 미디어인 신문과 방송과는 다른 구조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시민 스스로 참여적인 진화를 하게 되고 이슈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이와 같은 사이버 커뮤니티의 토론과 자발적인 참여는 촛불관련 커뮤니티와 게시글 수의 변화에서 확인된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net)과 네이버(Naver.com) 촛불관련 사이버 커뮤니티는 2009년 4월 14일 현재, 다음이 847개 네이버가 163개이다. ‘광우병’을 주제 검색어의 일종인 태그(tag)로 설정한 커뮤니티는 다음이 420개, 네이버가 183개이다. 관련 게시글 역시 ‘촛불’을 검색하면, 다음은 67만 건을 넘을 정도로 관련 글이 많이 포스팅 되어 있다.

〈표 1〉 촛불 관련 다음 네이버 사이버 커뮤니티

	검색어	커뮤니티	게시글 수
다음	광우병	420개	104,642건
	촛불	847개	675,612건
네이버	광우병	183개	76,184건
	촛불	163개	155,217건

* 자료 : 송경재(2008, 182)에서 인용 후 연구자가 재조사.

게시글들은 사이버 커뮤니티로 포스팅되고 회원들의 인식전환과 지식획득에 중요한 도움을 준다. 이는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정보가 공유되고 특정 사항에 대해 논의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성과 댓글이나 글쓰기 등을 통한

시민 관심도가 고조되고 활발한 정보의 교환과 제공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송경재 2008, 174-176). 촛불시위가 끝난 지 2년이 경과한, 2010년 9월 13일 현재 ‘촛불시위’와 ‘촛불집회’를 포함한 사이버 커뮤니티 이름검색 결과는 다음 382개, 네이버 50개이다. 이와 같이 2년이 지난 후에도 촛불시위와 관련된 사이버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 이슈의 위력과 정보 확산의 근거지가 사이버 커뮤니티임을 알게 해준다.

〈표 2〉 촛불 관련 다음 네이버 사이버 커뮤니티

	검색어	커뮤니티	계
다음	촛불시위	163개	382개
	촛불집회	219개	
네이버	촛불시위	27개	50개
	촛불집회	23개	

* 자료 : 2010년 9월 13일 연구자가 정리

비단 게시글 만이 아니라 사이버 커뮤니티의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표 3〉은 다음과 네이버에서 ‘촛불시위’와 ‘촛불집회’ 검색어로 2009년 4월을 기준으로 중요 사이버 커뮤니티를 회원 수 별로 정렬한 것이다. 커뮤니티는 대부분 2008년 촛불시위 기간을 전후해서 형성되었으며, 회원 수는 많게는 9,000명에 이른다. 중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여기서 주목되는 형태는 〈대구경북 아고라인의 모임〉(<http://cafe.daum.net/dgagora>)이다. 이들은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서 활동하던 토론자들이 지역별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이버 커뮤니티이다.²⁾ 이들은 후원금 모금과 지역 내에서의 소규모 촛불운동, 바자회, 후원회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저항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이슈집단이 정치적 집단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두 번째 형태는 〈불법촛불시위 반대연합〉(<http://cafe.naver.com/>

2) 이들 외에도 후술하겠지만 서울강남지역, 동작, 경기 부천시, 부산 경남지역 등 각 지역 촛불시위 때 아고라 토론방에서 정보를 공유했던 참여자들의 사이버 커뮤니티들이 조직되어 있다.

antidemo) 이다. 순위 내에 있는 주요 커뮤니티가 촛불시위를 찬성하는데, 이 커뮤니티는 반대활동을 하고 있다. 하나 찬반을 구분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 일부 사용집단만의 도구가 아니라 다원화 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념·지역·세대를 망라하는 사이버 커뮤니티 기반의 시민운동 등장은 사이버 커뮤니티가 이념적 경도 내지는 한쪽 정파만의 공간이 아님을 알게 해준다.

세 번째 형태는 <강원복지연대>(http://cafe.naver.com/dduk2)와 같은 자원봉사와 복지를 다루는 전형적인 비정치적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이다. 이 커뮤니티는 복지와 자원봉사를 이슈로 하는 사이버 커뮤니티이지만 지역 내 촛불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분석할 것이지만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커뮤니티 시민운동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표 3〉 촛불시위 관련 사이버 커뮤니티(회원 수 순위별)

	주요 사이버 커뮤니티	회원수	개설일	게시글 수	비고
다음 카페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	9,177명	2008년 6월 8일	20,249건	- 후원금 모금 - 지속적인 활동
	촛불소녀의 코리아	4,826명	2008년 5월 17일	12,767건	- 촛불소녀 커뮤니티 - 청소년 참여 사이버 커뮤니티
	촛불집회 같이 가기	1,853명	2008년 6월 2일	39,088건	- 집회 참여 독려와 정보 공유 사이버 커뮤니티 - 모금활동 전개
	촛불집회 생중계	1,785명	2008년 6월 1일	-	- 생중계 활동
네이버 카페	대구경북 아고라인의 모임	1,318명	2008년 6월 21일	13,778건	- 아고라 활동 카페 - 지역 아고라 사이버 커뮤니티
	이명박 탄핵을 위한 네이버 탈환카페	2,940명	2008년 5월 1일	14,835건	- 토론 및 정보공유 - 집회 참여
	불법촛불집회 반대연합	2,305명	2008년 6월 5일	212건	- 촛불시위 반대 사이버 커뮤니티
	강원복지연대	1,247명	2006년 6월 15일	1,187건	- 강릉지역 봉사단체 커뮤니티 - 촛불시위 활동전개

* 자료 : 다음 카페 및 네이버 카페 검색결과 (검색일 : 2009년 4월 12일)

엄밀하게 규정하면, 사회·정치와 관련된 네티즌의 정보공유는 낮은 수준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협력은 집단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협동생산을 통한 사이버 커뮤니티의 내적 강화를 야기한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공유는 개인에게 최대한 참여할 자유를 허용하는 동시에 집단행동의 비용을 최소화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정보공유의 과정은 정보를 확산하고 (informing) 연계하면서(connecting)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information network)를 구축한다. 사이버 커뮤니티 회원들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스스로 민주적인 커뮤니티 운영 경험이 존재한다. 미국과 한국의 사이버 커뮤니티 참가자 실증조사에서도 커뮤니티 활동은 내적으로 정보신뢰와 규범, 민주성을 단련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Sander 2005; 송경재 2006).

그리고 사이버 커뮤니티는 구성된 후 장기간 의사결정과정에서 회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운영진 선출이나 경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 정보공유도 자체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일종의 규범과 같은 것으로 평판이 좋은 회원의 게시글이 올라오면, 댓글도 많고 정보를 신뢰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적 연대와 정보의 확산성과 과급력은 일반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보다 강하다. 이처럼 사이버 커뮤니티에서의 정보공유 및 확산과정은 과거와 같이 소수의 정치리더나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 스스로가 조직화하고 참여하는 탈집중과 탈권위적인 수평적·자발적이며 다원화 된 정보공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동학은 사이버 커뮤니티가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가 존재해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약한 연대가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협력과 신뢰가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Kluver 2005; Chadwick 2006; 김용철·윤성이 2005; Kim & Kim 2009).

2.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의 집단행동

보다 중요한 시기는 집단행동의 단계이다. 연구에서는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원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이버 커뮤니티를 ‘정치적 사이버 커뮤니티’로, 단순히 공동의 관심사에 따라 이합집산 하여 새롭게 정치무대에 등장한 커뮤니티는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로 조작적 개념화 했다. 전자는 정치적 목적과 활동지향성이 분명하지만, 후자는 빔버가 주장한

일시적으로 이슈에 따라 결집하고 해산하는 형태의 사이버 커뮤니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Bimber 1998, 384).

서키(2008)가 강조한 바, 집단행동은 책임공유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인 거버넌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인식이 공유·결집하면서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집단행동이 시작된다. 사이버 커뮤니티의 집단행동은 다시 낮은 수준인 책임공유의 단계와 동원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인터넷에서 형성된 이슈가 구체화되고 인식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직접 행동으로 연계되는 것을 반영한다.

우선, 2008년 촛불시위의 특징적 현상은 정치에 무관심한 층이라 생각되었던 10대 촛불소녀와 청소년, 20대 직장인, 가족과 함께 집회에 참여했던 30~40대 아줌마 부대가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토론을 벌이는 가하면, 카메라나 메이저리그 야구 동아리, 화장, 음식, 미용 커뮤니티가 전면에 나선 것이다(이갑윤 2010, 95-120; 장우영 2010; 송경재 2008; 이현우 2008).

〈표 4〉 촛불시위 참여 사이버 커뮤니티의 두 유형

구 분	내 용	주요 사이버 커뮤니티
정치적 사이버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명한 정치·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사이버 커뮤니티(정치성향 집단의 사이버 커뮤니티 집결) -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구성되며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민운동 - 현장형·집회형 운동방식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탄핵사이트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안티 이명박 커뮤니티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여러 이슈 및 취미에 따라 정보 및 개인 활용 사이버 커뮤니티가 사회이슈에 따라 새로운 정치적 공간으로 변화 - 정치적 관심도가 낮은 계층·세대들이 활동 - 잠재적 집단이 사안별 또는 이슈별로 구성되는 시민들의 이슈집단이 주도 - 유희적·문화적 운동방식을 선호하며 현장형·집회형도 병행 - 참여 성원의 다양성 때문에 온-오프라인에서 낮은 수준의 참여에서 높은 수준의 참여까지 다양한 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LB Park • 이화이언 • 마이클럽 • 쌍코 • 화장~발 • 다음카페 유모차부대 • 82Cook.com • 부산맘 아기사랑 • 다음카페소울드레서 등

* 자료 : 윤성이 외(2008)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보완 재구성

이들 집단의 촛불시위 등장은 기존 인터넷 시민운동 이론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다. 따라서 사이버 커뮤니티를 일반화하기 보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표 4>는 정치적 사이버 커뮤니티와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의 유형별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기되는 의문은 “왜 평상시에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 되던 비정치적인 여성, 스포츠, 패션, 연예인 팬클럽 등이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로 전환하면서 촛불을 들고 집회현장에 등장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활동했나?” 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 행위자와 집단행동의 동학 그리고 사회적 자본 축적에 따른 학습효과 등 3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행위자로서 이슈집단은 특정한 이슈가 발생하면 그 이슈에 따라 적극적인 시민운동에 참여한다(Ling 2008; Bimber 2003). 이러한 이슈집단의 특징은 일상적인 시기에는 일상사에 몰두하지만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 여기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면 더욱 활발하다. 한 사례로서 2000년 9월 영국에서 갑작스러운 휘발유 가격 인상에 항의해 기습시위가 발생했는데 이때 수천 명의 시민들은 이동전화와 SMS 등 초보적인 ICTs를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화하여 단기간에 극적인 집단행동에 나섰다(Rheingold 2002).

둘째, 이처럼 일상시기와 다른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면 즉각적으로 결집하고 해산하는 유동적이고 아메바 같은 방식의 집단이 이슈집단이다. 이들의 저항과 정보공유, 조직화의 무기는 ICTs이고 대표적으로 사이버 커뮤니티이다. 조화순과 송경재의 연구(2004)에 따르면, 주로 특정한 이슈를 기반으로 시민운동이 발발하는 것은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른 시민운동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³⁾ 이슈집단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활성화될 때 궁극적으로 집합적인 정치 행위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송경재 2008; 팔란티리 2020 2008, 248). 이를 적용하면, 2008년 촛불시위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비정치적인 취미형이나 정보형 사이버 커뮤니티가 사회 현안에 대한 이슈가 집중되면서 새로운 정치집단으로 진화하여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한편, 이러한 이슈형 시민운동은 조화순과 송경재(2004)는 단일이슈 네트워크로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들의 논문을 참조 바람.

셋째, 집단행동의 이면에는 사이버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도 연계되어 있다. 다니엘(Daniel 2009, 10-35)은 커뮤니티가 구성되면 사회관계망이 확산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으로 정보가 공유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신뢰하는 정보가 만들어질 경우 내적으로 협력, 집단행동의 규범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공통의 이해를 같이 하는 집단일수록 활발하다. 2008년 촛불시위에서도 기존 커뮤니티에서 훈련된 내적인 토론과 협력, 정보 공유의 전통이 '최고기 이슈'로 인해 점화

〈표 5〉 촛불시위 동안 주요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운동

구분	특성	촛불시위 활동
소울드레서	20~30대 여성 8만 명의 패션 커뮤니티	· 5월 3일 청계광장 독자 집회 · 5월 9일부터 광고모금 3차례 실시(2차 모금 예: 1주일간 3,700명 참가 4,300만원 모금)
마이클럽	여성 포털 사이트 (선영아 사랑해)	· 오프라인 깃발 들고 촛불시위 참가, 신문광고, 음식물 지원, 자발적인 모금운동, 각종 후원사업
동방신기 팬클럽	가수 동방신기 팬클럽 회원 커뮤니티	· 5월 2일 조직적으로 회원들의 집회 참여
미주한인 주부모임	캐나다와 미국 한인 주부 모임	· 광고 참여, 미주지역에서 촛불시위 주도
82 cook	여성 요리정보 사이트	· 하위 커뮤니티 소모임 나라사랑모임 결성, 생수, 수건, 김밥 등 각종 후원사업 · 편향된 언론보도에 저항해 독자적 언론사 시위주도
엽기혹은진실 (엽혹진)	회원수 280만명의 연예 정보 사이트	· 자체 깃발을 들고 6월 초까지 수백 명 집회 참석 · 10대 중고생(촛불소녀) 집중적인 참여
MLB 파크	미국 야구 동호회	· 신문광고 참여광고, 온라인 토론, 직접 집회 참여 (모금운동 5일 동안 1,343만원 432명)
SLR 클럽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	· 직접 집회 참여, 이슈 토론방 활동 · 사진게시판과 토론방 운영
DVD 프라임	DVD 동호회	· 집회참여, 시사토론방 토론
부산맘 아기사랑	다음 사이버 커뮤니티	· 광고 성금 모금, 집회참여, 불매운동 주도
이화이연	이화사랑 커뮤니티	· 1,800만원 광고성금, 사이버 토론방 운영
스노로즈	숙명여대 커뮤니티	· 집회 참여, 광고 성금, 사이버 토론방 운영
화도사랑	남양주 화도 지역 커뮤니티	· 직접 서울시청 집회참가 및 남양주 지역집회 조직 · 집회 후기 홍보

되고 비정치적인 커뮤니티가 이슈형으로 전환되는 한 계기가 된 것이다.

한편 운동양식에서도 전통적 정치집단이 주도하는 사이버 커뮤니티와 이슈집단 사이버 커뮤니티 차이는 나타난다. <표 4>에서도 확인되지만 첫째,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은 정치적 성향의 사이버 커뮤니티와 이원적인 차원의 시민운동 형태라는 특징을 보인다. 정치적 사이버 커뮤니티가 주로 현장형·집회형 시민참여를 선호한다면,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는 다양한 참여의 방법을 개발하는 방식이 돋보인다. 대표적인 방법이 자발적인 모금 운동으로 신문광고, 보수신문 절독운동, 촛불시위 현장 김밥과 생수 후원에서 직접 시위 참여에 이르기까지 시민참여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이슈형 커뮤니티 회원들은 청소년과 여성, 청년을 중심으로 낮은 수준에서의 유희적·문화적 참여를 시도하고 이런 정치의 문화화 현상은 주요한 특징이 되었다(윤성이·장우영 2008; 이현우 2008). 이들은 대열에 속하기 보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손을 잡고 시위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노래자랑과 사적인 경험담 공유, 친구에게 참여사진 홍보하기, 즉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어떤 회원들은 가면과 분장, 만화 패러디를 하는 등 재미있게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했다(<쌍코>, <화장~발> 회원 인터뷰 2009년 10월 9일). 기실 한국에서 유희적·문화적 참여현상은 2004년 탄핵집회 때 인터넷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계승 발전하면서 2008년까지 이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시민참여의 한 방법이라 할 만하다.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가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한 것은 자신들의 의지를 알리기 위한 신문광고모금과 게재운동이었다. 다음카페 소울드레서(cafe.daum.net/SoulDresser)는 회원들의 성금으로 5월 17일자 한겨레신문과 19일자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다음 카페 소울드레서 8만 회원들은 올바른 언론사를 응원합니다.”라고 광고하면서 네티즌이 중심이 되는 시민운동을 주도했다(아고라 페인들 2008, 86-87). 그 결과 5월부터 3개월 동안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광고운동이 시작된다. 수백 개의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 주도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1면 하단 광고만 40차례 이상, 중간광고는 수백 건이 게재되었다. 1면 하단 내지는 전면광고를 게재한 사이버 커뮤니티만 경향신문에 다음카페 소울드레서(5/19, 6/2), MLB Park(5/26), 소울드레서(6/2), 시민광장(6/3), 마이클럽(6/4), 북음주의(6/6), 화장~발(6/9), 구봉숙의 도시탈출 팬클럽(6/10),

한류열풍사랑(6/11) 등이고 한겨레신문도 마이클럽(5/29, 6/11), 소올드레서, SLR 클럽, 82cook 나사모, DVDPrime(6/2), 이화여대 재학생, 졸업생(6/5), 연세대 재학생·졸업생, 마이클럽·SLR클럽·ppomppu의 연합광고(6/10), 미주한인주부(6/11), 숙명여대 커뮤니티(6/14), 아고라회원(6/20) 등이 광고를 게재했다(미디어오늘 2008년 6월 11일). 여기에 중간광고, 조각광고 까지 포함하면 그 건수는 더욱 증가한다. 이를 통해서 사이버 커뮤니티의 의사를 다른 시민들에게 전달했고, 이는 신선한 어드보카시(advocacy) 방법으로 시민참여의 모델이 되었다. 한 사이버 커뮤니티 광고모금 담당자는 이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커뮤니티 내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바뀐 것은 동호회 안에서 광우병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쇠고기 전면개방을 밀어붙인 정부와 그를 지지하는 보수언론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략)... 신문광고 모금을 하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5일 동안 1,343만원이 모였고 432명이 참가했다. 금액이 넘치자 게시판에 입금 금지공고를 하기도 했다.
(〈MLB Park〉 담당자 인터뷰; 미디어오늘 2008년 6월 11일을 연구자가 문어체로 수정)

그리고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 회원들은 현장 집회도 참가했지만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대국민 설득방식이라는 새로운 운동방식을 선도했다. 이런 모습은 자기이익적인 집단이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커뮤니티의 민주주의 효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정치적인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 〈화도사랑〉(<http://cafe.naver.com/newhd>) 운영진의 인터뷰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같은 지역에 기반한 사이버 커뮤니티는 어느 지역이나 정치적인 색깔을 띠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슈는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보고 싶다. 나름대로 고심도 많았지만 여러 사람의 토론으로 결론은 지역커뮤니티도 지역 이슈와 함께 나라의 중대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화도사랑〉 운영진 인터뷰 2008년 12월 11일을 연구자가 문어체로 수정)

3. 사이버 커뮤니티의 온-오프라인 시민운동: 크로스오버와 다층적 참여

기존의 전통적인 시민운동에 관한 연구가 지나치게 정치효과 분석에만 한정되었다면 본 연구는 동학과 과정으로서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운동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기존 정보사회에서의 시민운동은 참여적인 시민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에 라인골드나 채드윅과 같은 학자들이 시민참여의 방식으로서의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운동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정보사회 시민운동이 여전히 산업사회적인 전통을 이어받아 지도와 피지도가 존재하고 정부저항 또는 민주주의 실현이란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했다면, 최근의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 기반의 시민운동은 적극적인 권리, 특정한 이슈의 성격에 따라 유동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송경재 2010, 220-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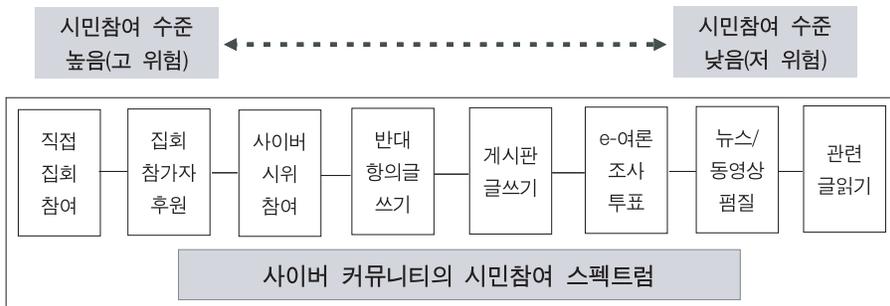
기존 시민운동과 다른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운동 특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의 운동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단순히 물리적이고 이차원적인 참여 구조가 아닌 ‘융합형 내지는 크로스오버(crossover) 시민참여’가 나타났다. 촛불시위에서 사이버 커뮤니티는 시민들에게 인터넷을 무기로 선거나 청원이라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참여만이 아니라, 저항적이며 유희적인 소프트한 방식으로 새로운 참여를 만들었다(Chadwick 2006, 122; Norris 2002). 2008년 촛불시위에서 대표적인 크로스오버 시민참여와 저항은 청와대 홈페이지다운 사건이다. 6월 10일 8시 30분에 서울시청 광장 촛불시위 현장에서 사회자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제안하자 불과 1분 뒤에 홈페이지가 다운되었다. 시위가 인터넷 생중계되면서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집에서 인터넷을 보거나 사이버 커뮤니티의 속보게시판을 보며 사이버 항의 시위를 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크로스오버형 시민운동을 전개한 것이다(송경재 2008, 188-189).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시민의 수준과 층위에 따른 다양한 참여현상이 발견된다. 사이버 커뮤니티는 높은 수준의 참여를 할 수 있는 회원부터 낮은 수준의 참여만 허용되는 회원이 있다. 따라서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 내에서 강한 저항방식의 집회참여에서 낮은 수준의 모금이나 게시판 댓글달기 등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층위적인 시민참여가 보편화된 것이다. 저항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직접 집회참여로, 낮은 사람은 격려글 남기기, 폼질, 글 읽기 등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사이버 커뮤니티의 참여 다양성을 확보했다.

실제로 오프라인 집회참가와 온라인 참가후기가 상당한 비중으로 커뮤니티에 공개되었다. <화도사랑>(http://cafe.naver.com/newhd)과 <마이클

립)(<http://www.miclub.com>), 〈화장~발〉(<http://cafe.daum.net/makingup>)과 같은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집회에 참가한 후기가 게시되었고 여기에 격려 댓글과 후원글이 포스팅되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다음 촛불시위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구분이 없는 크로스오버 시민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1〉 층위적인 시민참여(참여의 위험 수준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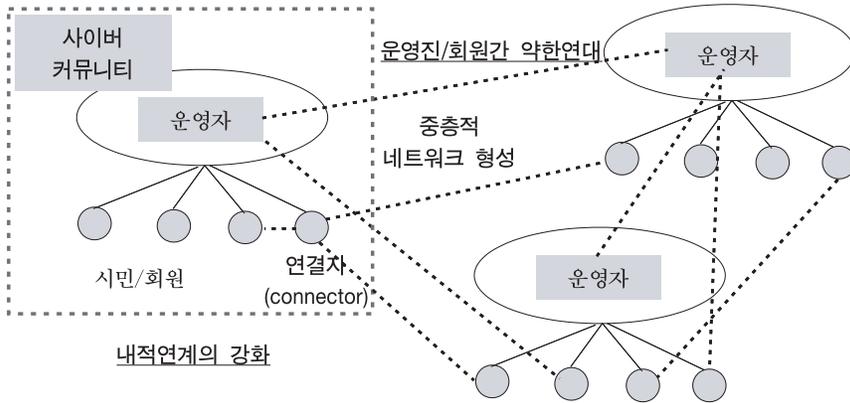
커뮤니티에서는 단순히 온라인 활동만 한 것이 아니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후기를 남기고 이들의 활동에 대해 또 다른 댓글과 격려글 달기가 시작된다. 하루의 시위가 끝나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직접 오프라인 시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자신의 수준에 맞는 참여와 기여를 하고 싶어한다. 실제 글쓰기와 응원 글 등이 아직도 커뮤니티 토론방에 남아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어서는 융합적인 방식의 운동을 했다.

(〈쌍코〉, 〈화장~발〉 회원 인터뷰 2009년 10월 9일을 연구자가 문어체로 수정)

세 번째 특징은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자기조직화와 정보소통의 효과로 인한 연계성의 강화이다. 촛불시위 동안 사이버 커뮤니티는 정보네트워크 구성과 조직화를 통한 오프라인 활동의 커넥터(connector)역할을 수행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민운동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은 전형적인 네트워크 기반형 시민운동이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사이버 커뮤니티내의 강한 내적 연대와 사이버 커뮤니티 간의 약한 네트워크 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2〉는 사이버 커뮤니티가 다층적인 차원에서 연계하고 참여의 구조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래드웰(Gladwell 2002)의 지적대로 커넥터(connector)는 네트워크에 흠어진 사람들 사이의 연계구조로서 사이버 커뮤니티는 복잡한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허브로 기능하고 있으며 연계는 다

〈그림 2〉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사이버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모델



* 실선은 강한 연계, 점선은 약한 연계를 표시한다(필자 주).

층적으로 운영된다. 네트워크에서 핵심인 커넥터는 과거 집단 간을 연결해주는 기능에 머물렀지만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는 회원들 간의 정보와 집단행동의 연계로서 존재한다. 이것이 사이버 커뮤니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정보공간이자, 참여공간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운영자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별도의 정보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보를 습득하고 인지하게 되고 그것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되는 밑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네트워크 사회에서 시민성(citizenship)은 다층화(multi-layered)되고 정보적 판단을 가진 시민(informed citizen)이 되고 이들은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내는 진일보한 이슈집단으로 성장한 것이다.

Ⅳ.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운동 분석

우리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사이버 커뮤니티의 특징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분석했다. 이 장에서 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하여 그 동학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를 행위자로서의 이슈집단, 참여 아키텍처, 네트워크 연계성, 민주주의 학습효과 변수 틀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촛불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 시민운동을 현상이 아닌 행위자인 시민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네트워크화 된 시민은 과거와 달리 대의제 하에서 게이트키퍼인 정당과 미디어를 거치지 않고 이를 우회(bypass)하는 구조 속에서 스스로 정치적 의제를 생산하고 소비한다. 따라서 시민은 변화된 구조와 환경에서 정치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Bimber 2003). 이런 현상에 천착한다면, 시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서드슨(Schudson 1998)이 강조한 바, 계몽주의 시대의 계몽된 시민에서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민성을 획득한 식견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 시민참여를 즐기는 모니터 시민(monitor citizen)이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식견 있는 시민과 모니터 시민으로의 이행은 이슈집단의 등장과 진화에서 중요하다(윤성이 외 2008). 링(Ling 2008)이 집단이 구성되면 가치이념의 집단적 해석을 시도한다는 지적과 같이 이슈집단은 동질적인 목표와 지향성을 가진 이들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시민들은 일상 시기에는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감지하다가 어느 수준을 넘는 임계점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비정치적인 사이버 커뮤니티가 촛불시위에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슈를 기반으로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는 행위자와 참여적인 ICTs의 활용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민주화 공간에서 의식 있는 시민들이 ICTs 발전에 따라 이들이 자연스럽게 결집하고 그 매개가 사이버 커뮤니티가 된 것이다.⁴⁾

둘째, 촛불시위의 경우 토론방이나 게시판보다는 사이버 커뮤니티가 시민참여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발견된다. 정보사회의 시민은 근대적 관념의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현실지향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이들이 참여 아키텍처로 구성된 다양한 취미·목적·학습 사이버 커뮤니티 가입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카페만 해도 회원 수 3,800 만 명 카페 730만 개가 활동하고 있다. 사이버 커뮤니티 참여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관계를 구

4) 되돌아보면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이버 커뮤니티 사회참여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2002년 효순·미선양 촛불시위에서도 한 프로축구 서포터스 사이버 커뮤니티가 깃발을 들고 참여한 것이나, 2004년 <디시인사이드>라는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가 오프라인 시위에 참여한 것 등 주요 정치이슈에서 사이버 커뮤니티의 정치활동은 2000년대 초반부터 발견된다(송경재 2008).

성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 정체성(group identity)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집단행동이 가능하게 한다. 이미 노리스(Norris 2002)는 인터넷에서 형성된 커뮤니티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정치적 이익, 정치지식과 참여 간의 선순환(virtuous circle)을 촉진하고 자기강화(self-reinforcing)를 위한 낮은 진입장벽이 민주주의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런 맥락에서 사이버 커뮤니티는 이슈에 민감한 시민의 존재와 오랜 집단활동 경험은 상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사이버 커뮤니티는 집단행동을 하기 위한 좋은 자양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사이버 커뮤니티의 강점도 확인된다. 이는 3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이버 커뮤니티 내의 강한 내적 연대와 사이버 커뮤니티 간의 약한 네트워크 구조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 구조였다. 상층부만의 연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원만의 연계도 아닌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형태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촛불시위에서 '지도부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 free network) 조직의 강점 때문이다(Barabási 2002). 과거 일방적인 지도부에 의존하던 방식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각각 다른 층위에서 참여한다. 시민들은 낮은 수준에서라도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토론하고, 공유하고, 협력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의 참여구조는 확립화 된 방식의 위로부터 강제되는 top-down 시민참여가 아닌 bottom-up 방식이다.

두 번째 강점은 사이버 커뮤니티가 인터넷이라는 특성 때문에 네트워크 연계성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은 한국적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의 약한 연대 네트워크와 강한 동기집단(동료, 선후배, 가족, 친구, 여성, 청소년 등)이 결합되면서 네트워크의 연계성을 확대한 것이다. 게시판, 사이버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약한 연대와 오프라인 상에서 형성된 동료집단 간의 강한 연대(strong ties)가 긴밀하게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윤성이·장우영 2008).

세 번째 사이버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강점은 협력과 공유의 경험이 평판이 되고 사이버 커뮤니티를 더욱 수평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이다. 실제 촛불시위 이후 거리에 나섰던 수십만의 사이버 커뮤니티 회원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물론 그 의식이나 인지적인 측면에서까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시 일상에서 잠재집단이 되었다. 그렇지만 다른 편에서는 조직화된 정치 커뮤니티로 성장한 현상도 목격되는데 그것은 아고라에서 활동했던 적극적 참여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아고리안(Agorian)의 모임이다. 이 모임은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로 시작되었지만 상설적인 정치 사이버 커뮤니티로 탈바꿈한 경우이다. <부천 동작 촛불시민 모임>(회원수 420명), <부산, 경남 아고리안 모임>(회원수 2,714명), <아고라 강남직장인 촛불본부>(회원수 2,128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다음 카페 검색 2011년 4월 30일 현재).

마지막으로 넷째, 분석을 종합하면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이슈집단의 사이버 커뮤니티 시민참여는 퍼트남(Putnam)이나 다이아몬드(Diamond) 등 소위 '네오 토크빌리안(neo-Tocquevilleans)'이 주장한 공동체 활동의 '민주주의 학습 효과'와 맥이 맞아 있다.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자기 조직화된 시민들이 다음 단계인 오프라인 집회참석으로 이어진 것이 커뮤니티의 민주주의 학습효과와 상당히 유사하다. 시위과정에서 사이버 커뮤니티는 시민들의 공적현안이나 쟁점을 구조화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참여를 계속할 수 있는 기제가 되었다. 요컨대, 커뮤니티에서의 민주적·공개적 운영경험과 단련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시민참여의 토대가 된다는 공동체 민주주의, 사회적 자본 접근이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사이버 커뮤니티에도 작동될 수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6>과 같은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시민운동의 동학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요약하면, 2008년 촛불시위 과정에서 수많은 비정치적 사이버 커뮤니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위에 참가한 것은 행위자인 회원들의 이슈집단으로의 변화, 사이버 커뮤니티에서의 정보신뢰와 평판시스템 작동, 정보공유의 학습효과, 네트워크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 시민운동을 만들었던 것이다. 사이버 커뮤니티는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는 집합재(collective goods)가 형성됨으로 신뢰와 협력의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시민참여가 증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해관계 조정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한 사이버 커뮤니티는 공동이해

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기 용이한 도구가 된 것이다. 사이버 커뮤니티와 이들 간의 연계가 확대되면 기존에 개별적이고 고립적인 존재였던 네트워크화 된 시민(networked citizen)으로서 임파워먼트를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의미성을 가진다.

〈표 6〉 사이버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시민운동

구분	지표	내용
On-line Space	공유	- 사이버 커뮤니티가 정보공유 플랫폼 역할 - 커뮤니티 참여자(회원) 간의 정보 접근성 높음 - 정보신뢰의 형성으로 내적 구성원들의 연계성 강화
	협력	- 사이버 커뮤니티가 구성원들 협력의 사회적 도구 - 그룹 정체성의 확립(커뮤니티 공동 규범 메커니즘 작동) - 정보의 협동생산(집단지성을 통한 새로운 정보의 생산 및 공유) - 정보와 집단행동 네트워크 구축됨으로 정보의 확산성 강화
	집단 행동	- 임계점을 넘을 경우 집단행동에 돌입 (융합형 또는 크로스오버형 시민운동 등장) - 온라인내의 참여 강화 (정보 읽기/댓글쓰기/여론조사투표/사이버시위/서명) -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생산과 소비(네트워크 효과)
Off-line Space	집단 행동	- 직접 오프라인 공간으로 진출 - 낮은 수준의 후원활동에서 직접 참여로 발전 - 오프라인 집회참가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므로 상호작용적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새로운 정치 사이버 커뮤니티의 결성(지역 아고리안 분화 사례)

V. 결론

2008년 촛불시위의 중심에는 사이버 커뮤니티가 있었다. 사이버 커뮤니티 기반 시민운동은 기존 시민운동단체가 주도하던 것과는 다른,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이슈지향적인 시민운동 양식을 선보였다. 그리고 시민참여 측면에서 2008년 촛불시위는 네트워크의 정보 유통, 사이버 커뮤니티의 조직·동원과정 등에서 확인되는 능동적인 현명한 시민의 등장을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참여 강화가설을 증명하고,

이슈집단 기반의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운동으로의 진화과정과 동학을 제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사이버 커뮤니티 기반 시민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비정치적인 사이버 커뮤니티의 참여이다. 그 시작은 패션, 스포츠, 연예, 요리, 환담 등 관심거리나 취미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했으나, 촛불시위라는 거대 이슈에 비정치적인 커뮤니티들이 집결한 것이다. 이들의 행동은 취미만큼이나 다양하게 전개되었다(아고라 폐인들 2008, 324).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비정치적 사이버 커뮤니티가 2008년 촛불시위에서 시민운동과 정치참여 방식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시키고 있다는 발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라 규정하고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첫째, 촛불시위에 등장한 비정치적인 사이버 커뮤니티는 이슈집단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슈집단은 오래전부터 내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슈집단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등장할 때, 사이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결집하고 조직, 동원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도한다. 그리고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시민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차원적인 참여의 스펙트럼 차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융합형 내지는 크로스오버형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슈집단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토대로서 사이버 커뮤니티는 중요한 자양분이었다. 사이버 커뮤니티에 참여한 시민들은 정보신뢰와 평판, 공유의 경험으로 인식공동체를 구축했고, 이들은 조직화된 역량으로 100여일에 가까운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셋째, 민주적인 학습효과와 네트워크 효과도 중요했다. 오래전부터 사이버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하고 정보공유의 평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 커뮤니티가 내적으로는 강한 연계를 가지지만, 외적으로는 약한연계의 이중 네트워크를 구축해 top-down 방식의 정보와 동원의 흐름이 아니라 bottom-up 방식의 정보공유와 집단행동 구조가 구축되었다. 지도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 공유하고 조직, 동원의 네트워크가 촛불시위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증명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보완 과제가 존재한다. 첫째, 사이버 커뮤니티 기반 시민운동의 동학을 규명했고, 이슈집단이란 시민의 변화에 대한 다층적인 해석은 가능했지만 본질적으로 잠재집단인 사이버

커뮤니티가 모든 이슈에 반응서 시민운동 형태의 참여를 보일 것인가라는 의문은 남는다. 둘째, 본 연구가 지나치게 사이버 커뮤니티 조직화와 동원 현상에 대한 낙관적인 해석일 수도 있다. 김용철 등(Kim and Kim 2009, 78)이 주장하는 바, 시민운동은 인터넷에 기반한 탈 물질주의적 참여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제시한다. 하지만 시민운동이 항상 이성적이고 긍정적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운동은 일정부분에서 감성과 분노의 에너지를 조직화하고 이성과 감성이 공유하는 방식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커뮤니티의 합리성과 이성적인 행동만이 아닌 감성의 표출이라는 차원에서 이슈의 특징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이슈형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운동의 장점을 부각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 셋째, 사이버 커뮤니티의 동학을 모델화하였으나 일상시기와 특별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의 사이버 커뮤니티의 동학은 다르다(송경재 2006; 장용호 2002). 고로 이슈가 형성되었을 때와 일상시기의 동학의 차이와 전환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보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민참여의 동학에 대한 보다 엄밀한 메커니즘이 규명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상배. 2008. 『인터넷 권력의 해부』. 파주: 한울.
- 김용철 · 윤성이. 2005. 『전자 민주주의』. 서울: 오름.
- 미리, 크리스토퍼. 2001. “사이버공간과 불리한 공동체: 집합행동 도구로서의 인터넷,” 마크 스미스 · 피터 콜록. 조용기 역. 『사이버공간과 공동체』. 서울: 나남출판사.
- 백옥인. 2001. “네트와 사회운동.” 홍성욱 · 백옥인 엮음. 『2001 사이버스페이스 오디세이』. 서울: 창작과 비평사.
- 빔버, 브루스. 이원태 옮김. 2008. 『인터넷시대 정치권력의 변동』. 서울: 삼인.
- 송경재. 2006. 『사이버 공동체와 민주주의』. 서울: 한국학술정보.
- _____. 2008. “네트워크 시대와 시민운동의 정치사회적 함의,” 이호영 외. 『한국 인터넷 문화의 특성과 발전방안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_____. 2010. “인터넷 시민운동 양식의 변화와 의미,” 『사회이론』, 통권 제35호. 203-232.
- 야고라페인들. 2008. 『대한민국 상식사전: 이고라』. 서울: 여우와 두루미.
- 안토니오 네그리 외. 조정환 · 정남영 · 서창현 역. 2008. 『다중』. 서울: 세종서적.
- 윤성이 · 유석진 · 조희정. 2008. 『인터넷 정치참여와 대의 민주주의』. 국회입법조사처.
- 윤성이 · 장우영. 2008. “청소년 정치참여 연구: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건국6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 이갑윤. 2010. “촛불집회 참여자의 인구 · 사회학적 특성 및 정치적 정향과 태도,”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제1호. 95-120.
- 이설. 2008. “네트즌 여론, 대중의 지혜? 난폭한 포퓰리즘?,” 『신동아』 8월호.
- 이재신 · 이민영. 2010. “촛불집회를 통해 나타난 새로운 시민문화와 생활세계의 복원,” 『사회과학연구』, 제41집 2호. 103-123
- 이현우. 2008. “정치참여 유형으로서의 촛불집회: 대표성과 변화,” 2008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7-26.

- 장용호. 2002. 『사이버 공동체 형성의 역동적 모형』. 서울: 집문당.
- 장우영. 2010. “네트워크 개인주의와 시민저항: 2008년 촛불시위를 사례로,” 『한국 정치연구』, 제19권 제3호. 25-55.
- 전상진. 2008. “촛불, 전문가지배에 대한 집단지성의 도전? - 일반인과 전문가 관계 변동을 중심으로,” 미발표 원고.
- 조정환. 2008. “2008년 촛불봉기: 다중이 그려내는 새로운 유형의 혁명,” 제4회 맑스 코뮌날레 3차 워크숍 자료집.
- 조화순. 2008. “사이버 액티비즘과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 촛불시위 관련 사이트 분석,” 한국정치학회 건국6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 조화순 · 송경재. 2004. “인터넷을 통한 시민정책참여: 단일이슈 네트워크의 정책 결정과정,”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5호.
- 팔란티리 2020. 2008. 『우리는 마이크로 소사이어티로 간다』. 서울: 웅진윙스.

- Barabási, Albert-László. 2002. *Linked : The New Science of Networks*. Cambridge : Perseus.
- Barber, Benjamin. 1998. *A Place for Us: How to Make Society Civil and Democracy Strong*. Hill and Wang.
-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Berman, Jerry and Mulligan, Deirdre. 2003. “Digital Grass Roots: Issue Advocacy in the Age of the Internet,” in Anderson, Daviv, and Cornfield, Michael. (eds). *The Civic Web*. Bost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Bimber, Bruce 1998. “The Internet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Populism, Community and Accelerated Pluralism.” *Polity* Vol. 31 No. 1.
- Blanchard, Anita. 2004. “The Effects of Dispersed Virtual Communities on Face-to-Face Social Capital,” Huysman, Marleen and Wulf, Volker. (ed.), *Social Capit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Castells, Manuel. 2001. *The Internet Galaxy : Reflections on the Internet, Business,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 Chadwick, Andrew. 2006.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hen, Robin and Rai, Shirin. 2000. *Global Social Movement*. London: the Athlone Press.
- Daniel, Ben Kei. 2009. *Social Capital Modeling in Virtual Communities*. Hershey: Information Science Reference.
- Davis, Steve, Elin, Larry, and Reeher, Grant. 2002. *Click on Democracy: The Internet's Power to Change Political Apathy into Civic Action*. Boulder: Westview.
- Edwards, Bob, and Foley, Michael W. 2001. "Civic Society and Social Capital: A Primer," in Edwards, Bob, Foley, Michael, and Diani, Mario (eds), *Beyond Tocqueville*. Hanover and London: Tufts University.
- Fernback, Jan. and Thompson, Brad. 1995. "Virtual Communities: Abort, Retry, Failrue?"
- Fine, Gary. 1979. "Small groups and culture creation: The idioculture of Little League baseball tea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733-745.
- Gladwell, Malcolm. 2002. *The Tipping Point: How Little Things Can Make a Big Difference* Back Bay Books.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 Hampton, Keith and Wellman, Barry. 2003. "Neighboring in Netville: How the Internet Supports Community and Social Capital in a Wired Suburb,"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City & Community* 2: 4. 277-311.
- Hill, Kevin A. and Hughes, John E. 1998. *Cyberpolitics: Citizen Activism in the Age of the Internet*. Bost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Jones, Steve. 2003. *Encyclopedia of New Media: An Essential Reference to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Thousand Oaks: SAGE.
- Kim, Yong Cheol and Kim, June Woo. 2009. "South Korean Democracy in the Digital Age: The Candlelight Protests and the Internet,"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DBSERVER*. Vol. 40, No. 1. 53-83..
- Kluver, R. 2005. "Political culture in online politics," in Consalvo, M and Allen, M.

- (eds), *Internet Research Annual*. 75-84.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Kraut, Robert, et al. 2002. "Internet Paradox Revisited," *Journal of Social Issue* 58(1). 49-74.
- Lee, Hyeon-Woo. 2009. "Political Implications of Candle 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KOREA OBSERVER*. Vol. 40. No. 3. 495-526.
- Ling, Rich. 2008. *New Tech, New Ties: How mobile communication is reshaping social cohesion*. Massachusetts: MIT Press.
- Norris, Pippa. 2002. *Democratic Phoenix :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quet, Seb. 2002. "Making Group-Forming Ridiculously Easy," <http://radio.weblogs.com/0110772/2002/10/09.html> (검색일 : 2008년 4월 11일).
- Rheingold, Howard. 1993. *The Virtual-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_____. 2002. *Smart Mobs : The Next Social Revolution*. Perseus.
- Sander, Thomas. 2005. "E-associations? Using Technology to Connect Citizens: The Case of Meetup.com," Paper Prepared for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ptember, 2005.
- Shirky, Clay. 2008. *Here Comes Everybody: The Power of Organizing Without Organizations*. USA: Penguin Books. 송연석 옮김. 2008.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서울: 갤리온.
- Sunstein, Cass. 2007. *Republic.com 2.0*.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pscott, Don. 2008. *Grown Up Digital: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New York: McGraw-Hill.
- Tocqueville, Alexis. 2003. *Democracy in America*. Penguin.
- Toffler, E. 1980.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m Books.
- Tonn, B. E., Zambrano, P., and Moore, S. 2001. "Community networks or networked community?"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19. 201-212.
- van Dijk, Jan. 1999. *The Network Society: Social Aspects of New Media*. London: Sage.

Whittington, Keith. 2001. "Revisiting Tocqueville's America: Society, Politics, and Associ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Edwards, Bob, Foley, Michael, and Diani, Mario (eds), *Beyond Tocqueville*. Hanover and London: Tufts University.